

지역 매 아리

만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선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 만월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선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주식 김 명품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고창군(군수 유기상)에 따르면 만월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지주식 김의 명품화 사업 등에 국비 10억원을 지원 받는다.

해양수산부 '선진공동체 특별사업'은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조직해 관할지역의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불법어업을 추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어장환경개선과 공동생산·공동판매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그 결과를 다음해에 평가받는다.

앞으로 만월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고창 만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창 지주식 김의 명품화를 위해 재래식 자연 수계 김 채취장과 건조장, 김 원초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시설 등 저장·유통 시설, 생산원감의 부가치치를 더 높이기 위한 맛김·김 부각 등의 가공시설 등을 갖춘 전통 수계 김 가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전국 기업환경지도 평가 기업체감도 분야 도내 1위 선정

정읍시가 전북도 내에서 기업 체감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018년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규제평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전라북도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경제활동인구성 부문에서는 S등급을 받아 도내 5위를 기록했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업체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정읍시는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년에도 정읍시는 기업체감도 분야에서 A등급 받아 도내 2위, 경제활동인구성 부문에서 S등급을 받아 도지사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정읍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정읍' 만들기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과 환경개선사업, 1기업 1담당 기업체 고충처리제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판매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간담회나 정책 토크 시 수렴한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섰다.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등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안전한 식수, 최상급 수질 유지

정읍시, 비상급수시설 평상시 4개소 개방... 연간 생수 23만 3600톤 공급

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 상수원 오염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정읍시민에게 필요한 비상 급수량은 일일 1,762톤(7만520명 기준)이며, 연간 64만3,130톤에 이른다.

정읍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시 보유 4개소(연간 23만3,600톤), 민간시설 5개소(연간 24만 8,200톤) 등 연간 공급 가능량은 9개소 48만 1,800톤이며, 연간 16만 1,330톤이 부족하다.

시는 부족한 비상급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기동주민센터, 주차장(수성, 평화, 연지, 충무공원, 공설운동장), 농소동 효죽경로당, 내장산리조트, 입안산 갯바위등산로, 생활체육공원 등 14개소에 대량관정을 시추했다. 그러나 석회암지대, 불소과다함유, 체수량 부족 등 부적합 사유로 모두 폐공처리 했고, 작은말고개 도로 자투리부지(대은사 부근)에 대량관정 개발을 끝으로 급년도 비상급수개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1일 내장산문화광장에 공주거북자매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노래하는 내장산 귀갑약수 샘 설화를 스토리텔링하고 일일 체수량 200톤 규모의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해 임시 개장했다.

이와 함께 시설육상에 등대부수를 설치해 야간 방문 취약지를 해소하고 낮에는 자욱한 물안개를 뿜어내는 몽



정읍시의 '노래하는 내장산귀갑약수'.

환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을 찾는 오토캠핑 마니아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래하는 내장산귀갑약수가 샘의 고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기 시제품으로 개발된 귀갑수 와인, 귀갑약수 식초 등 특화상품의 관광상품화와 공주거북자매 캐릭터 상품과 관련 특화음식 등이 개발되어 시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용산호 초입에 일일 100톤 공급규모의 용혈약수를 개발하고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용혈약수를 스토리텔링한 설화를 개

발하여 관광상품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매분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청소와 점검정비를 실시해 최상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전쟁,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식수와 식량, 전기 등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자원이며, 시가 시민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자원이다"고 강조하고, "식량은 공공비축미 등으로 조달이 가능한데 부족한 비상급수원과 에너지원의 확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태풍·해일시 어선의 안전 '확보'

내륙도 방파제정비 1차분 준공

고창군 유일의 유인도인 '내륙도'에 방파제 정비 1차분 사업이 준공돼 태풍·해일시 어선들의 안전한 피항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내륙도 방파제 정비사업 1차분이 최근 완료됐다. 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까지 기존방파제를 27m 늘리고 있다. 올해는 국비 2억4000만원을 들여 기존방파제를 15m이상 연장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잔여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해 나머지 12m 방파제 연장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태풍과 강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전기반시설을 구축해 주민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앞서 제4차 내륙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10년간 사업비 22억원을 전액국비로 투입해 복지회관 건립,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 바다물레길 정비, 저운항고 건립 등 7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복지회관 건립과 방파제 부분준공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내륙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내륙도는 섬 전체면적이 4만9372㎡이고, 25가구, 54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어민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빅데이터로 전기차 충전소 입지 정한다

고창군, 행안부 공모사업 '공공빅데이터 표준모델 정립' 마무리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입지 선정' 등을 진행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효율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2018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1인 가구 노후복지 수요예측 사업'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입지 선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표준화 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업무 효율성 향상과 예산절감, 유사·중복 분석에 대한 사전방지, 분야별 분석모델 및 활용 데이터에 대한 표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창군 '1인 가구 노후복지 수요예

측' 결과, 고창군은 2030년 이후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영유아·아동 및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와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복지 예산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입지선정' 예산 고창군 전기차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고창읍과 공음면, 심원면 등에 충전소 우선 설치할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향후 신설될 충전소의 입지별·월별 수요패턴과 충전내역 등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운영 안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향후 노후복지 예산의 편성과 활용, 다양한 노후복지 정책 개발로 노인 1인가구 대한 복지서비스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역주민의 산책로와 쉼터로 새롭게 자리매김

부안수생정원 주변 산책로 정비·신원천 수질향상으로 악취문제 해소

부안수생정원 주변 산책로가 정비됨에 따라 부안을 지역주민들의 두발라이프가 실현되어 크게 호응 받고 있으며, 신원천 생태하천사업 일환으로 수질정화시설이 최종 완공되어 신원천 수질이 2등급으로 크게 향상됨으로써 신원천의 악취문제도 해소로 부안을 지역주민 산책로와 쉼터로 새로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부안을 산은리, 신원리 일일 수생정원 관련사업은 7개사업/462억원으로 ▲신원천 생태하천조성사업(250억원) ▲수생정원 조성사업(60억원)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16억원) ▲산림조경숲 조성사업(5억원) ▲부안읍 생태회랑 조성사업(5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31억원) ▲수생정원원진입로 및 주차장조성사업(95억원)으로 202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신원천 생태하천 외3개사업(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 산림조경숲 조성, 생태회랑조성)이 준공됨에 따라 생태하천과 연계된 정원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 미세먼지 등의 저감효과가 기대되며, 추가로 4개사업/620억원으로 ▲봉덕소하천(90억원), ▲선은소하천(100억원) ▲부안읍 재해위험예방사업(209억원) 및 ▲부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221억원)과 연계 추진하여 부안

읍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총괄과 이재원과장은 부안을 탐방객 유치로 지역경제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역주민 소독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생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생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생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